

나는 테니스를 좋아한다. 건강을 위한 유일한 운동수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겼을때 흐뭇함과 졌을 때 아쉬운 기분이 사람을 젊게 만들기 때문이라. 그런데 게임에 지고 싶지 않아, 연습도 하고 이사람 저사람 붙들고 배워보려 하지만 나이탓인지 지는 것이 잦아진다. 얼마전에는 승률이 눈에 띄이게 떨어지게 되어, 어느 아마추어코치에게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난타를 쳐보고 발리랑 서브도 시켜보더니 왓, 기본자세가 많이 틀렸다는 것이다. 하기가 레슨을 좀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주로 벽치기와 귀동냥으로 배운 실력이나 기본이 안돼있다는 말에는 아니라 할 수 없는 처지다. 그가 시범삼아 몇가지를 고쳐주니 흥내만 좀 냈는데도 불이 전보다 세계 넘어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효과가 있나보다 좋아했으나 곧 다시 게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지금과 같이 기본이 엉성한 폼으로는 크게 나아지기는 쉽게 안되겠다는 사실이다. 기본이 시원치 않은 채로 재아무리 열심을 부려도 힘의 낭비만 많고 결정적인 순간에 승기를 못살린다.

요즈음 우리나라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잘 팔리질 않는단다. 그동안 독창적인 상품보다는 복제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시장에 내놨으나, 중공과 동남아에 비해 임금은 높아졌는데 생산성은 그에 따르지

못하니 단가가 오를수 밖에 없고, 그나마 물건을 만들면 팔수 있는 것도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를 안하려하니 물건을 못만드는 등 이런모양 저런형태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무역적자폭도 커지고 있다는 애기다.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감을 행정당국에서는 작년에도 알고 있었던 듯하다. 결국 수출을 하자면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물건이 안팔리니 큰일이라면서 독창적인 상품개발 운운하면서 다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안이 하나둘씩 경제신문 1면에 나타난다. 전에 비해 이번에 좀 특수했던 조치는 첨단산업에서 일할 양질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십수년동안 지켜온 원칙을 깨고 수도권대학 정원을 증원시켰다는 것이었다. 또 최근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30분 더 일하기 운동」도 참 흥미롭다. “하면 되니까”, 30분 더 일하기로 부족하면 한 시간 더 일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식으로 밀고 나가면 우리나라가 2001년에는 무난히 선진국 대열에 끼어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국제경쟁력에서 이겨보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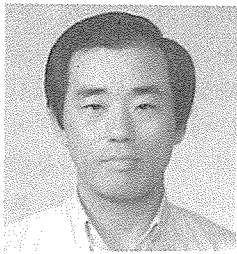
그런데 며칠전 어느 G7 프로젝트 연구계획 관련모임에 참석해 보고는 이유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이런 식으로는 2001년이 되어도 한국이 G7에 들어갈 가망이 있어 보이질 않

는다는 묘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 모임에는 으레 전문가이던 전문가와 전문가인체 하는 비전문가들이 여럿 있고 이런 분들이 경험담을 늘어놓으며 회의를 주도하게 된다. 회의 주제는 효율성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의를 차리는 것이 중요하여 최고령자가 맡는다. 회의는 길어지고 시간이 가도 결론이 나오질 않는다. 사실과 가정과 제안조건을 갖고 추론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인 會議진행

아니고, 각자 자기 견해만 얘기하는데 이미 나름대로의 논리적 결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회의를 수없이 많이 한다고 해도 에만 썼지 유익한 회의가 되지 못한다고 느꼈다. G7 진입을 위한 기획부터 이렇게 비효율적인데, 어떻게 10년짜리 프로젝트 계획을 6개월내에 헤치울 수 있단말인가. 우리가 옌나라 일본을 늘가깝게 지켜보면서 그들의 경제력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한때는 반일/극일 하였지만,

요즘 TV는 그들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별의별걸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런식으로 흥내를 내면 1인당 GNP가 6천불에서 7천불로까지는 쉽게 오를까? 그러나 곧 한계에 부딪치고 말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잘사는 나라를 배우려면 눈에 보이는 걸모양보다는 그 경제를 움직이는 감춰진 원리-그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기본들이 결여돼 있지 않은가. 테니스와 마찬가지로 기본



변 중 남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의 교수

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아무리 우격다짐으로 노력을 한다해도 힘의 낭비, 정서의 낭비가 커질 뿐 막상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적다.

그동안 우리와 선진국들을 여러가지로 비교하면서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을 지적한 글들은 수없이 많다. 항상 듣는 얘기로 우리가 빨리 갖추어야 할 기본중에는 질서를 지키는 것, 정직한 정보의 수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줄 아는 것, 특히 그중에서도 논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민주적인 모임이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에 대해서,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회의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으며, 의견개진은 어떻게 하며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 결론을 유도하느냐 또는 의결하느냐 하는 것등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적어도 회의의 의장은 회의 기본규칙은 물론 회의내용을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재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라도 회의가 난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부쩍 많아진 각종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자주 곤혹스러운 경우를 당한다.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회의를 독식하는 사람은 제쳐 두더라도 주장하는 논리가 도무지 설득력이 없고 모순스럽다. "나는 잘났다, 고로 너는 못났다"는 식의 결론도 있고 "사람을 사귀려면 술을 마실줄 알아야 한다"는 식의 당위론적 주장은 너무 흔하다. 따지고 보면 논리학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더라도 대학을 나오고 특히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논리의 기본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 버리는 것 같다.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살롱 홈즈나 스타트랙(Star Trek)에 나는 귀가 큰 외계인과 같이 되도록 훈련을 받을 것까지는 없다.

그러나 몇가지 기본적인 룰과 원리는 배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험적으로 관찰한 바로, 우리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들을 나열하자면,

1.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차이
2. 공리(기본가정)와 정리의 차이
3. 삼단논법 긍정식(Modus Ponens)과 삼단논법 부정식(Modus Tollens)의 차이
4. 연역법과 귀납법의 차이
5. 수학적인 2차논리(또는 흑백논리)는 많은 논리체계 중에 단지 한 형태에 불과하고 다른 논리에서는 배중률과 모순률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이 있다.

위와같은 기본적인 논리개념의 혼동은 아전인수격 주장을 낳게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회의는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2001년까지 G7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그처럼 큰 도약을 위한 방법을 찾는다는 기본을 갖추는 운동 등을 포함하는 다방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